

887어진호 침수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신속한 인명구조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(화) 18:05,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285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887어진호 침수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“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인명구조, 수색 및 선박안전에 최선을 다하고, 인근 선박 및 해경 등과 협조하여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중국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5. 5.13.(화) 18:05,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285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887어진호 침수 중

* 887어진호(29톤), 8명 승선

△ (19시 25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경계” 발령

△ (현재 피해현황) 인명피해 ‘없음’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